

제 238호 · 2014년 1월 8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2013년 상하이항 컨테이너물동량 3.3% 증가로 세계 1위 유지
2. 파나마 운하 완공 시기 추가 지연 가능
3. 러시아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Global Ports, NCC 흡수합병
4. Maersk, Euronav에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5척 매각

물류시장동향

1. Evergreen, 원가 절감을 위한 선대 개편계획 발표
2. 로테르담 항만, 항만 사용료 인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2013년 상하이항 컨테이너물동량 3.3% 증가로 세계 1위 유지

- 상하이항은 2013년에 전년대비 3.3% 증가한 33.6백만 TEU를 처리하여 소폭의 회복세를 보임
 - 2012년은 전년 대비 2.5% 증가에 불과하였으나, 장강 유역의 터미널 지분의 지속적 확보 및 확대를 통해 3%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이는 최근 중국의 수출 침체로 상하이항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간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을 3%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임
 - 그러나 총 물동량은 524백만톤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여, 상하이항 운영사인 SIPG의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향상됨
- 한편 상하이항은 현재 내부적인 경쟁과 기회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우선 내부적 경쟁에서는 대부분의 아시아-유럽항로에서 상하이항의 다음 기항지인 닝보-저우산항과 지속적인 경쟁으로 물동량 증가율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음
 - 최근 APM Terminals는 2014년 하반기 운영 예정인 닝보항의 신규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지분을 25%에서 33%로 확대하여 중국내 주요 거점항만으로 활용할 계획임
 - 닝보-저우산항은 2012년 16.8백만TEU에서 2013년에 18.2백만TEU로 잠정 집계되어 전년 대비 8%의 성장률을 기록함
- 기회적 측면에서 상하이항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2가지 촉매제를 가지고 있음
 - 첫째는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양산 심수항 4단계의 개발로서, 향후 Post-Panamax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 자동화 터미널을 개발할 예정임
 - 두 번째는 세금면제, 관세면제 및 통화자유화 등 종합적 정책이 시행되는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면 범아시아의 SCM 허브로 성장 가능

자료 : www.lloydslist, 2013-2014.

김근섭 전문연구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파나마 운하 완공 시기 추가 지연 가능

- 파나마 운하 확장 완공 시기가 2015년 상반기에서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
 - 파나마는 2006년 국민투표에 의해 52.5억 달러 규모의 파나마 운하 확장을 결정
 - 2009년에 스페인(Sacyr), 이탈리아(Salini Impregilo), 벨기에(Jan de Nul) 및 파나마 기업(Constructora Urbana)으로 구성된 United Group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
 - 파나마 운하 개장 100주년이 되는 2014년에 완공예정이었으나, 2015년 상반기로 완공시기를 한차례 연장
 - 그러나 United Group에서 초기 계약금액인 31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하는 16억 달러의 초과경비가 예상된다는 점,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2013년 말에 발표
 - United Group은 21일 간의 기간을 준다고 하였으나, 파나마 운하청은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 파나마 운하청은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그램의 공정률이 70.7%라고 밝힘
 - 많은 공정들이 완료되었으나, 신규 갑문의 공정률이 64% 밖에 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
- 파나마 운하가 확장되면 세계 LNG 선박의 88%가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LNG 시장이 주된 수혜 대상이 될 전망
 - 현재 파나마 운하는 LNG 선박의 8.6%만을 수용할 수 있으나, 운하가 확장되면 트리니드 토바코 등 대서양 북부연안의 국가에서 미서부 및 동아시아 등으로 수출이 용이하게 되므로 이 지역 관련 기업들의 기대가 높음
- 한편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지연으로 파나마의 건설산업이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입게 되나, 장기적으로는 공사완료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수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파나마 운하 확장에 대비하여 수심확대 및 항만시설을 증설하고 있는 사바나 및 마이애미 등 미 동부 연안의 항만들도 준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으므로,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 지연의 또 다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자료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14.1.6.

송주미 전문연구원 (☎ 02-2105-2872, jmsong@kmi.re.kr)

□ 러시아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Global Ports, NCC 흡수합병

- 러시아 최대 운영사인 Global Ports가 러시아 2위 운영사인 NCC Group그룹을 매수
 - 총 매수금 2억 9천 1백만 USD는 2013년 12월 27일 지불되었으며, 이를 위해 Global Ports는 중장기 담보대출로 2억 3천 8백만 USD 자금을 조달
- Global Ports는 금번 NCC 합병을 통해 동유럽 최대 컨테이너 운영사이자 세계 20대 컨테이너 운영사로 도약
 - Global Ports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의 Petrolesport 터미널 및 Moby Dik 터미널, 그리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동측 끝단에 위치한 보스토츠니 항의 Vostochnaya Stevedoring 등 러시아 내에서 3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 중
 - 또한 핀란드에서는 헬싱키와 코트카에서 2개의 Multi-Link 터미널을 운영 중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야니노 물류단지의 75% 지분, 에스토니아의 주요 유류터미널인 AS Vopak E.O.S.의 지분 50% 보유
 - NCC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First Container Terminal (FCT) 및 FCT의 내륙 컨테이너 야드 역할을 수행하는 Logistika-Terminal (LT)의 지분 각각 100%,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00km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신규 Ust-Luga Container Terminal (ULCT)의 지분 80%를 보유
 - 따라서 통합된 Global Ports Group은 러시아 컨테이너 화물의 관문인 발틱해와 극동만 인근 9개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게 되며, 총 400만 TEU의 컨테이너 하역능력 보유
 - Global Ports Group는 금번 통합으로 추가적 자본지출을 최소화 하면서도 장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112만 TEU의 여유능력을 보유
- 금번 통합 이후 Global Ports Group 지배 구조의 변화 예상
 - 통합 이전에는 Global Ports Group의 지분은 APMT가 37.5%, 러시아 사회기간시설 기업인 N-Trans가 37.5% 보유, 나머지 25%는 시장에 공개
 - NCC는 Ilbrinio Establishment Limited와 Polozio Enterprises가 보유
 - 통합 이후 N-Trans와 APMT가 각각 30.75%, Ilbrinio Establishment Limited와 Polozio Enterprises가 각각 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나머지 20.5%는 시장에 공개예정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3.12.31.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 Maersk, Euronav에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15척 매각

- Maersk Tankers는 벨기에 유조선사 Euronav와 약 9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선박매매계약을 체결
 - VLCC 15척에 달하는 선박거래는 Maersk그룹의 자회사인 Maersk Tankers의 마케팅 전략으로, 운송화물세분화(Product Segmentation)를 수행하기 위한 자본회수가 목적
 - Maersk Tankers는 VLCC시장에 노출된 자본을 줄이고 내부 역량을 다른 목표시장에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자 했으며 Euronav와의 선박 거래를 통해 목적을 달성
- Euronav는 Maersk Tankers로부터 매입한 선박으로 유조선 풀(Pool)을 운영할 계획
 - Euronav는 Maersk Tankers의 싱가포르 지사로 부터 선박을 인수할 계획이며 선박대금은 인수와 동시에 집행할 예정
 - 선박인도는 타회사에 용선중인 선박 1척을 제외하고 1월부터 6월 사이에 모두 이루어질 계획이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전체 선박의 이전이 완료될 전망
 - Euronav가 인수받을 VLCC의 선령은 평균 4년 정도인 신형 선박이며 이번 거래를 통해 Euronav는 ULCC 1척, VLCC 11척, 수에즈막스급 선박 23척이었던 자사 선대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을 전망
 - Euronav는 새로 매입한 선박을 설립멤버로 소속되어 있는 '국제 유조선 풀(Tankers International VLCC Pool)'을 통해 운용할 계획
 - 지난달을 기준으로 대형선박을 이용한 원유수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시장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
 - Enronav는 유조선 운영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유조선 인수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자금을 추가 조달할 계획
- Maersk Tankers은 작업부하 최소화해 내부 역량을 집중할 예정
 - Maersk Tankers는 현재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 약 4,000명의 직원이 원유와 유류제품 사업부문을 관리하고 선대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근무 중
 - Maersk Tankers는 선박매매로 인해 계획된 작업에 단기적으로 일부 부하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부역량을 동원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
 - Maersk Tankers는 선박을 Euronav에 인도하기 전까지 선박과 관련한 모든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며 향후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사 전략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

자료 : www.shippingwatch.com, www.maritime-executive.com, 2014.1.6.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물류시장동향

□ Evergreen, 원가 절감을 위한 선대 개편계획 발표

- Evergreen은 14,000TEU급 대형선박 7척을 용선하여 운송 단위당 원가를 절감할 방침
 - 새로 도입할 선박의 선주는 일본계 무역회사인 Sumitomo이며 2016-2017년 사이에 선박을 인도받아 10년간 용선할 계획
 - Evergreen은 지속적인 선대개편을 위해 작년에도 대형 선박을 발주 했으며, 기존에 주문되었던 13,800TEU급 선박을 지난해 9월부터 10척 중 2척을 인도받았으며 나머지 8척 또한 올해 말 까지 인도받을 예정
 - Evergreen의 이번 용선은 선복량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한 소형선박을 대체하고 중장기적으로 용선을 줄이고 자사선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
 - 따라서 새로운 선박이 선대에 추가되더라도 낡고 비교적 작은 선박들은 폐선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 수송량에는 큰 차이가 없을 전망
 - Evergreen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선사들이 효율적인 선대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전략의 일환

자료 : www.taipeitimes.com, 2014.1.6.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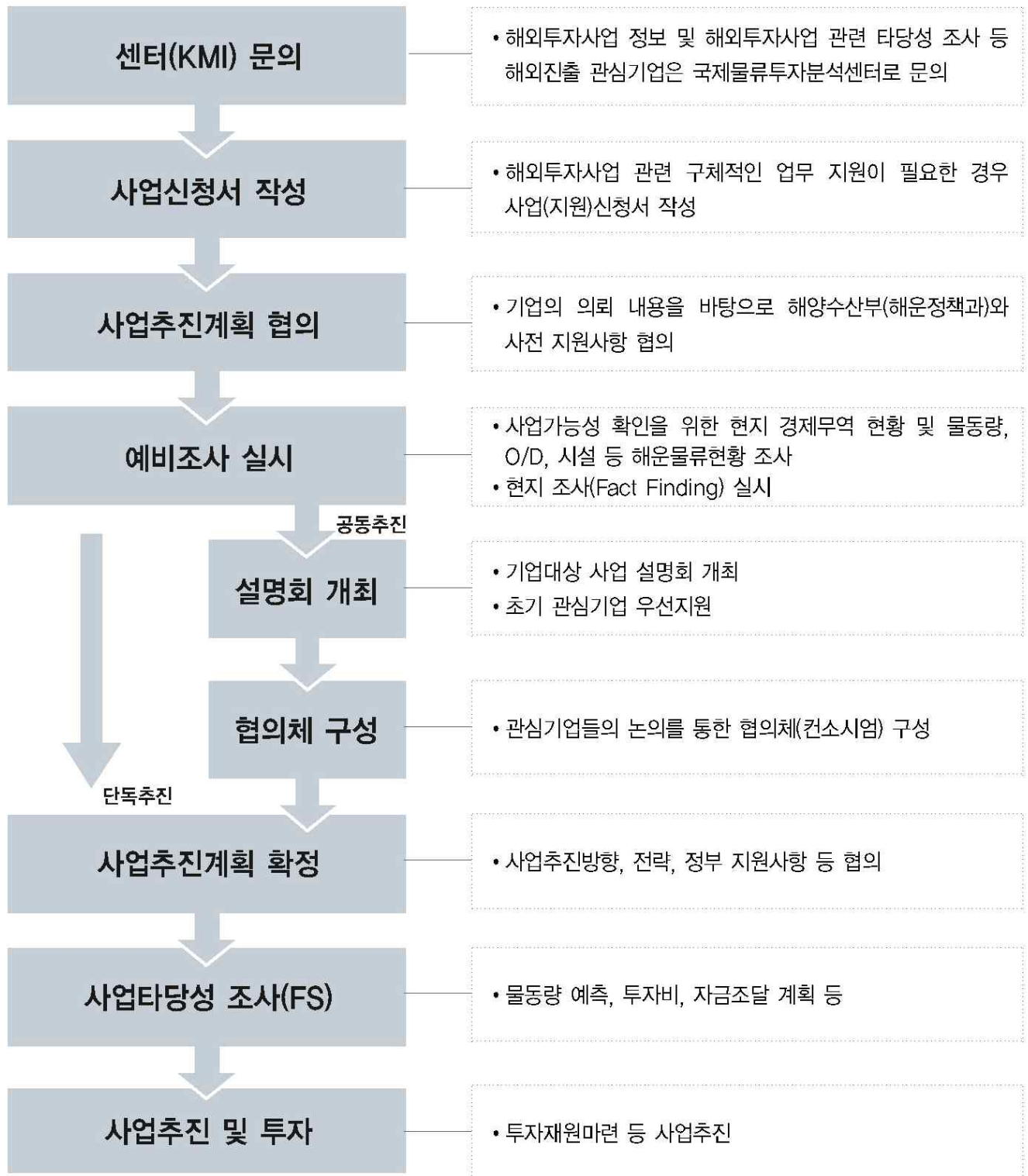
□ 로테르담 항만, 항만 사용료 인상

- 로테르담 항만은 항만 사용료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
 -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항만 이용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2014년부터 항만 사용료를 1% 인상
 - 이번 인상을 통해 로테르담 항만의 항만 사용료는 2008년 수준으로 회복
 - 환적화물 하역 요금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요금 수준을 유지
 - 항만 사용료 인상 발표와 함께, 로테르담 항만의 항만 사용료 수익 가운데 약 500만 유로와 200만 유로를 로테르담 항만과 항만진입 철도시설에 각각 투자하기로 결정
- 항만 사용료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한 이번 로테르담 항만공사의 결정은 2009년 이후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해운시황이 회복세가 시작했다는 기대감을 반영

자료 : www.businessmonitor.com, 2014.1.2.

민경창 연구원 (☎ 02-2105-2741, kcmin0525@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